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대한 가족 가치관의 영향 추세 연구 : 2005년,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진미정** · 정혜은***

본 연구는 미혼남녀의 결혼지연 현상을 가치관 접근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2005, 2009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중 미혼남녀 5,984명의 자료를 분석하여 결혼, 출산, 성역할 규범 등 가족 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보고, 가족 가치관이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지난 5년 사이 남성의 결혼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동조성은 낮아지고, 전통적 성역할분업과 남성생계부양모델에 대한 동조성은 높아졌다. 여성의 결혼의 필요성과 혼전 동거에 대한 동조성은 높아지고,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동조성은 낮아진 반면, 성역할태도는 보수적으로 변화하였다. 결혼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동조성이 높고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와 부양모델에 동조하는 사람일수록 결혼의향이 더 높았다. 남녀 모두 결혼 필요성에 대해 동조할수록 결혼희망연령이 빨랐으며, 여성은 혼전동거에 대해 수용적일수록 결혼희망연령이 높았다. 결혼 및 자녀의 필요성과 같은 당위적 규범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으로 올수록 약화된 반면, 자녀의 정서적 가치가 미치는 영향은 최근으로 올수록 강화되었다. 가족 가치관이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성별, 가치관 영역,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르게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핵심단어: 결혼의향, 결혼희망연령, 가족 가치관, 추세 연구

I. 서론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면서, 저출산 현상과 미혼남녀의 결혼지연 현상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김태현·이삼식·김동희, 2005; 유삼현, 2006; Jones, 2009). 합계출산율 감소로 나타나는

* 본 연구를 위해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 자료의 사용을 허용해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 mchin@snu.ac.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 hechung@khasa.re.kr

저출산 현상에는 유배우 기혼여성의 출산을 자체가 하락하는 요인과 미혼남녀의 초혼연령이 상승하는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 초혼연령 상승의 배경에는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비혼남녀의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과, 결혼을 하되 그 연령을 늦추는 결혼지연 현상이 함께 작용한다. 2009년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이 31.6세, 여성이 28.7세이며(통계청, 2009) 1990년 이래로 한 번도 감소한 적 없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혼인율이 감소하거나 초혼연령이 증가하는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서구 국가들과 아시아 국가들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는 혼인율의 감소는 제도로서의 결혼과 가족의 쇠퇴를 주장하게 한다(Cherlin, 2004; Finchman and Beach, 2010).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마찬가지로 미혼남녀들이 결혼을 선택하지 않거나 늦추고자 하는 원인은 두 가지 접근에 의해 설명된다. 결혼은 비용을 수반하는 선택이며, 그 비용 및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점점 더 상승하고 있다는 경제학적 혹은 구조적 설명이 그 하나이며, 결혼의 필요성과 가치가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는 문화적 설명이 또 다른 하나이다(정성호, 2009). 이 두 가지 설명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결혼에 대한 가치가 약화되고 있다는 문화적 설명은 당위적 규범으로서의 결혼과 출산, 나아가 가족에 대한 전통적 가치가 약화되고, 반대로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남는 것에 대한 사회적 제재가 약화됨으로써 결혼과 가족이 점차 사회적 규범이 아닌 개인적 선택의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사회적 규범과 가치관의 변화는 결혼과 독신의 비용-편익 구조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며, 결국 경제학적 틀에서 볼 때 결혼을 하지 않거나 연기하는 것이 현재 미혼남녀들에게 주어진 조건 하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연구는 결혼, 출산, 성역할 규범 등 가족과 관련된 가치관의 변화가 미혼남녀의 결혼지연 현상과 관련된다고 보는 설명의 연장선상에 있다. 통념적으로 가치관은 “인간이 삶이나 세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등의 가치를 매기는 관점이나 기준(민중국어사전, 2010)”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족 가치관이란 “가족에 대한 가치를 매기는 관점이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의는 광범위하고 모호하다. 가족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이 약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족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이기도 하다(김승권, 2008). 국제적으로 비교해보았을 때도 한국 사람들의 가족 가치관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편이다(은기수, 2006). 가족 가치관은 다양한 하위 개념을 포함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질문하고 측정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경향성을 발견해낼 수 있다. 가족 가치 혹은 가족 가치관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서로 다른 질문방식과

측정도구를 사용하고 있어 그 결과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 혼전 동거, 출산, 양육, 성역할 등에 대한 태도를 같은 방식으로 질문한 2005년과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자료를 비교하여, 가족 가치관의 변화를 파악하고 가족 가치관이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결혼과 가족이 규범이 아니라 개인적 선택 영역으로 전환될수록 가치관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결혼에 대한 사회적 규범의 제재력이 강할 때는 결혼보다 독신을 선택하고 싶어도 행동에 옮기기 쉽지 않지만, 그 제재력이 약할 때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혹은 결혼 규범의 제재력이 크지 않을 때, 결혼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주관적 생각과 결혼의향과의 관계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추세 자료의 강점을 활용하여 먼저 결혼과 가족 관련 가치관이 지난 5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 가치관이 결혼의향과 희망연령에 미치는 영향력이 두 시점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였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미혼남녀의 가족 가치관은 2005년과 2009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 연구문제 2.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대한 가족 가치관의 영향력은 2005년과 2009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II. 선행연구 고찰

1. 미혼남녀의 초혼연령 상승

최근의 가족인구학적 지표 중 저출산 현상과 함께 가장 주목되는 것은 초혼연령의 상승현상이다. 1990년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27.79세, 여성 24.78세였으나, 2000년에는 남성 29.28세, 여성 26.49세로 증가하였고, 다시 2009년에는 남성 31.61세, 여성 28.71세로 증가하였다(통계청, 1990-2009 혼인통계). 지난 20년 사이에 남성은 3.82세, 여성은 3.93세가 증가한 것이다. 2000년 기준 만 40-44세 여성인구의 2.6%만이 비혼으로 남아있는 것을 볼 때 초혼연령의 상승은 비혼인구의 증가보다는 결혼지연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Jones, 2004).

초혼연령의 상승은 비단 우리나라의 현상만은 아니다.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은 물론,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국가들 대부분에서 초혼연령은 상승하고 있다(Jones, 2009). 서구 국가들은 1970-2000년 사이에 혼인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이 시기동안 동거율이 증가하면서 혼인율의 하락을 상쇄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및 아시아 국가의 초혼연령 상승과는 구분되는 특성이 있다(Bumpass and Lu, 2000; Jones, 2004).

우리나라에서 초혼연령의 상승은 저출산 현상과의 연계 맥락에서 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초혼연령의 상승은 여성들의 가임시기를 단축시킴으로써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 이삼식(2005)에 따르면, 1995-2004년 사이의 저출산 현상을 분해했을 때 유배우출산율의 저하(29.0%)보다 초혼연령 상승(71.0%)의 설명 기여도가 더 높다. 출산율이 낮아진 것은 결혼한 사람들이 출산을 적게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늦게 결혼하면서 출산연령도 같이 상승한 것이 더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초혼연령의 상승이 출산과의 연계성 때문에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초혼연령의 상승은 궁극적으로 결혼과 가족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구의 경험을 보면, 결혼으로의 이행과정에서 동거가 보편화되고(Cherlin, 2004), 동거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혼율이 더 높은 경향이 있으며(Bramlette and Mosher, 2002; Teachman, 2003), 결혼할 때까지 노년기 부모에게 의존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등(Cherlin, 2004), 결혼과 가족의 다양한 변화가 초혼연령 상승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초혼연령의 상승은 그 자체로서 주목해야할 현상이다.

미혼남녀의 초혼연령의 상승 원인을 살펴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결혼으로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구조의 변화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었다. 은기수(2005)는 결혼 지연과 저출산 문제는 취업의 어려움, 직장의 불안정성 증대 등 경제적인 상황 악화에 기인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유삼현(2006)의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족형성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미혼남녀의 결혼희망연령 관련변인을 분석한 이삼식(2005)의 연구결과에서 미혼남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대학이상이며, 직업이 전문직일수록 결혼희망연령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병구 외(2007)는 1993년에서 2005년에 이르는 결혼 감소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고학력화와 임금을 상승이 결혼을 미루거나 단념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결혼 선택에의 영향요인에는 성별 격차가 있음이 많은 연구에서 나타났다. 이수진(2005)과 연구에서 취업여부는 남성의 결혼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여성에게는 유의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기수(1995, 1999)의 연구에서도 남성은 결혼을 결정하는데 안정적인 직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반면 여성은 결혼적령기 규범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 역시 남성에게는 경제적 자원으로 작용하여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으로의 이행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최새은·옥선화, 2003; 이삼식, 2005; 유홍준·현성민, 2010), 여성의 교육수준은 유의한 영향이 없거나(이삼식, 2005)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유홍준·현성민, 2010). ‘2005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의 미혼자 자료를 분석한 김정석(2006)은 여러 변인을 통제한 후에도 성별은 결혼의향에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결혼의 혜택과 비용에 대한 남녀의 인식차이로 설명하면서, 남성은 결혼으로부터의 혜택을, 여성은 비용을 더 높게 인지한다고 해석하였다. 주택공급과 남녀의 초혼연령의 관계를 파악한 정창무(2008)의 연구에서는 혼인 시 주택마련에 대한 남녀의 차별적인 규범으로 인해 주택공급이 남성의 초혼연령에는 음의 영향을, 여성의 초혼연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결혼 및 가족 가치관의 변화

미국의 결혼제도의 쇠퇴(marriage retreat)에 대한 연구들은 초혼연령의 상승이나 혼인율의 감소현상이 단지 사회경제학적 구조의 변화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실업율, 노동시장 확대 등 경기 변화가 혼인율에 다소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 효과가 큰 것은 아니다(Lichter, McLaughlin and Ribar, 2002). 오히려 성별관계의 변화로 인해 성별 분업화된 전통적 결혼의 유인이 약해지고, 결혼과 혼인 내 출산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약화되면서 결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감소하고 대신 동거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결혼의 탈제도화에 대해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한 Cherlin(2004)는 이러한 변화가 196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다고 보았다. 제도화되어있던 결혼이 선택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개인화된 결혼(Cherlin, 2004)” 혹은 “순수한 관계(Giddens, 2001)”로 바뀌게 되었다. 개인은 결혼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보상과 치러야 할 비용을 저울질하고, 결혼의 순서와 시기, 형태 등을 적절하게 조합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족 형성의 지연과 약화가 미혼남녀의 가치관 변화, 결혼 규범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설명하는 연구들이 많다(김혜영, 2008; 유삼현, 2006; 최은영, 2007). 15세 인구를 대상으로 한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에

대한 견해에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비율은 1998년 33.6%에서 2008년 23.6%,로 약 10%p가 감소하였다. 강력한 사회적 규범으로서의 결혼의 당위성에 대한 동의 비율이 낮아진 셈이다.

이러한 통계치를 가족 규범이나 가치의 약화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은기수(2005)는 비교문화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가족 가치가 여전히 보수적이고 전통적이라고 설명하면서 단편적인 설문항목으로 한국인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가족가치가 약화되었다거나 저출산이나 결혼지연을 초래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였다. 실증적인 연구결과들을 보아도 이러한 지적이 타당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5-54세의 비혼 일인가구를 조사한 김혜영·선보영·진미정·사공은희(2007)의 연구에서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자들이 이혼자들이나 사별자들에 비해 결혼의 당위성에 대해 동조하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가족가치를 내면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가치의 국제 비교를 시도한 정기선(2009)의 연구에서도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대체로 더 행복하다”라는 문항에 찬성하는 정도가 ISSP 조사 참가국 34개국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과 가족에 대한 규범의 변화가 초혼연령 상승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한편 사회적 규범이 약화되면 가치관은 개인의 선택에 더 중요한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 결혼의 필요성과 가치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결혼할 확률이 높고(Sassler and Schoen, 1999), 재혼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녀가 있는 재혼자와 결혼할 확률이 높다(Raley and Bratter, 2004). 서구의 연구들이 끊임없이 질문하였듯이 이 관계는 인과적 관계와 선택적 편이 관계를 모두 포함한다(Goldscheider et al., 2009). 즉 가치관이 행동에 선행할 수도 있고, 특정한 행동이 가치관 형성에 기여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혼자들의 경우 미혼자나 유배우자들에 비해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동조정도가 더 낮는데(김혜영 외, 2007; 정기선, 2009), 이는 이혼의 경험이 결혼의 가치와 보상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혼남녀의 결혼행태와 가치관 요인을 살펴본 이삼식(2005)은 미혼남녀의 결혼의 필요성 의식이 약할수록 결혼을 하지 않거나 연기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자녀가치관 약화는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계획시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정서적 지지자로서의 자녀에 대한 가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

음을 제시하였다. 30대 기혼남녀의 초혼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최세은·옥선화(2003)의 연구에서는 가치관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여성은 긍정적인 결혼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결혼 규범의 구속력을 더 강하게 인식할수록 실제 초혼연령이 빨랐지만, 남성에게서는 그런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미혼자를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의 선택적 편이 문제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분석 자료 및 방법

2005년 및 2009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에 포함된 20~44세 미혼남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미혼자는 2005년 남성 1,468명, 여성 1,202명, 2009년 남성은 1,746명, 여성 1,565명, 총 5,984명이었는데 분석모델에 따라 결측치로 인해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가치관이 미혼남녀의 결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였으며, 이분변수로 처리된 결혼의향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연속변수인 결혼희망연령은 중회귀분석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2005년과 2009년 자료를 결합하고, 조사년도를 가변수로 투입하였다(모델 1). 시간에 따른 가치관의 영향력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연도와 가치관의 상호작용 변수를 모델에 투입하여 상호작용 값의 유의성을 살펴보았다(모델2).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종속변수로 사용된 결혼의향은 “귀하는 결혼할 생각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결혼할 생각이 있다”를 결혼의향이 있는 경우로, 그 외의 응답(은)은 결혼의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결혼희망연령은 결혼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질문한 “결혼한다면 몇 세에 할 계획이십니까?”의 응답을 사용하였다.

통제변수인 사회·인구학적 변수로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모형의 경우 성별, 연령, 지역, 교육수준, 취업여부를 포함하였다. 이 중 지역변수는 이분변수로

1)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모르겠다)’

동부에 거주하는 경우를 준거집단으로 읍면부에 거주하는 경우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였다. 교육수준 역시 대졸(4년제 미만 포함)을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대졸이상을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취업여부는 구직활동여부에 상관없이 취업 상태가 아닌 경우를 비취업으로 분류하여 취업인 경우를 준거집단으로 설정하였다.

가치관은 결혼관, 자녀관, 성역할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결혼관을 대표하는 변수에는 결혼필요성, 혼전동거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자녀관을 대표하는 변수에는 자녀 필요성 및 자녀의 정서적 가치에 대한 태도를 포함한다. 성역할관을 측정하는 변수로 성분업적 역할규범에 대한 태도와 남편생계부양 모델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였다.

결혼관 변수 중 결혼 필요성은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4점)’에서 ‘하지 않는 게 낫다’(1점)까지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혼전동거에 대한 수용적 태도로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라는 문항에 ‘전적으로 찬성(4점)’에서 ‘전혀 찬성하지 않음(1점)’으로 4점 리커트 척도로 살펴보았다. 자녀관을 대표하는 변수 중 자녀 필요성은 “결혼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문항에 ‘전혀 찬성하지 않음(4점)’에서 ‘전적으로 찬성(1점)’으로 역환산된 점수로 사용하였다. 자녀의 정서적 가치 변수는 2개의 문항(자녀는 부부관계를 굳건하게 해준다,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덜 외롭다)의 평균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역할관 변수 중 성분업적 역할규범 변수는 “남편은 직업을 가지고 아내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좋다”라는 문항에 ‘전적으로 찬성(4점)’에서 ‘전혀 찬성하지 않음(1점)’으로 구성되었으며, 남편생계부양 모델 변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가족의 생계는 남편이 책임져야 한다”라는 문항에 위와 동일하게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분석에 사용되었다. 성역할관 변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IV. 분석결과

1. 결혼의향, 결혼희망연령, 가족 가치관의 추세 비교

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2005년과 2009년 값을 비교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미혼남성의 연도별 차이를 살펴보면, 결혼관련 변수 중 결혼의향이 있는 경우는

2005년 82%에서 2009년 75%로 비율이 낮아져, 5년 사이에 미혼남성의 결혼의향이 유의하게 낮아졌음을 보여주었다. 결혼의향이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혼희망연령은 2005년도 평균 31.16세, 2009년도 31.45세로 5년 사이에 결혼희망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2005년도 미혼남성의 85%가, 2009년도에는 미혼남성의 88%가 동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동부거주비율이 2009년도에 약간 더 높았다. 2005년도의 미혼남성의 대졸자 비율은 31%, 2009년도에는 35%로 2009년도의 미혼남성의 학력이 더 높았다. 취업상태를 살펴보면 2005년 미혼남성의 54%, 2009년도에는 47%가 취업중인 것으로 나타나 2009년의 취업률이 더 낮았다.

가치관 변수를 살펴보면 결혼의 필요성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2005년도 평균 2.95점, 2009년도 2.90점으로 나타나 지난 5년 사이 미혼남성의 결혼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유의하게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자녀의 필요성 항목 역시 2005년도 미혼남성은 평균 2.75점, 2009년에는 2.56점으로 나타나 2009년 점수가 더 낮았다.

<표 1> 2005-2009 미혼남녀의 가치관 및 관련변수 비교

구분	미혼남성				t	미혼여성				t
	2005		2009			2005		2009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결혼 변수										
결혼의향(1=있음)	0.82	0.39	0.75	0.43	4.81 ***	0.75	0.43	0.74	0.44	0.61
결혼희망연령(세)	31.16	3.45	31.45	3.28	-2.17 **	29.37	2.94	30.19	2.91	-6.18 ***
배경 변수										
연령(세)	26.65	5.22	26.66	5.67	-.01	24.52	4.51	25.08	5.08	-3.03 ***
지역(1=동부)	0.85	0.28	0.88	0.32	-2.41 **	0.87	0.26	0.92	0.27	-4.23 ***
교육수준(1=대졸 이상)	0.31	0.46	0.35	0.48	-2.33 **	0.48	0.50	0.44	0.50	2.11 **
취업여부(1=취업)	0.54	0.50	0.47	0.50	4.31 ***	0.59	0.49	0.49	0.50	4.91 ***
가치관 변수										
결혼 필요성	2.95	0.81	2.90	0.77	2.03 **	2.63	0.77	2.79	0.76	-5.43 ***
혼전동거 수용	2.57	0.83	2.56	0.82	0.21	2.38	0.86	2.50	0.83	-3.87 ***
자녀 필요성	2.75	0.83	2.56	0.81	6.32 ***	2.63	0.83	2.49	0.76	4.76 ***
자녀의 정서적 가치	3.25	0.62	3.05	0.59	9.16 ***	3.19	0.61	3.08	0.60	4.95 ***
성분업적 역할 규범	2.80	0.77	2.85	0.76	-1.94	2.56	0.79	2.79	0.81	-7.35 ***
남편 생계 부양 모델	2.80	0.78	2.90	0.71	-3.72 ***	2.54	0.77	2.95	0.75	-3.92 ***

주: 1) **p<0.05, ***p<0.01

2) 가치관변수는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됨: 매우 찬성(4점)-전혀 찬성안함(1점)

자녀의 정서적 가치는 2005년 3.25점에서 2009년 3.05점으로 5년 사이에 미혼남성이 자녀에 대해 정서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낮아졌다. 남편생계부양 모델은 2005년도 미혼남성은 평균 2.80점, 2009년도에는 2.90점으로 2009년도 미혼남성이 남편생계부양 모델에 대한 가치관에 더욱 수용적임을 알 수 있다.

미혼여성의 연도별 차이를 살펴보면, 결혼관련 변수 중 결혼희망연령은 2005년도 평균 29.37세, 2009년도 30.19세로 2009년도 미혼여성의 결혼희망연령이 유의하게 높았다.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연령은 2009년도 미혼여성의 연령(25.08세)이 2005년도 응답자(24.52세)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2005년도 미혼여성의 87%가, 2009년도에는 미혼여성의 92%가 동부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동부거주비율이 2009년도에 약간 더 높았다. 교육수준의 경우 2005년도 미혼여성의 대학졸업자 비율은 48%, 2009년도에는 44%로 2005년도의 미혼여성의 학력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상태를 살펴보면 2005년 미혼여성의 59%, 2009년도에는 49%가 취업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혼남성과 마찬가지로 2009년도의 취업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가치관 변수를 살펴보면 결혼의 필요성 문항에 2005년도 미혼여성은 평균 2.63점, 2009년도 2.79점으로 나타나 남성과 달리 여성들의 결혼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2009년에 더 높았다. 혼전동거에 대한 수용적 태도는 2005년도에는 2.38점, 2009년에는 2.50점으로 2009년도 미혼여성의 혼전동거에 대한 수용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자녀의 필요성 항목에는 2005년도 미혼여성은 평균 2.63점, 2009년에는 2.49점으로 나타나 자녀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정도가 더 낮아졌다. 자녀의 정서적 가치는 2005년 3.19점에서 2009년 3.08점으로 5년 사이에 미혼여성이 자녀에 대해 정서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낮아졌다. 성분업적 역할규범에 대한 문항에 2005년도 미혼여성은 평균 2.56점, 2009년도 미혼여성은 평균 2.79점으로 2009년도 미혼여성이 성분업적 역할규범을 더욱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편생계부양 모델도 마찬가지로 2009년도 미혼여성이 평균 2.95점으로 2005년도 미혼여성(2.24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2009년 조사에서 미혼남녀의 결혼희망연령은 더 높아졌고, 결혼의향은 여성의 경우에는 서로 비슷하고, 남성의 경우에는 더 낮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가치관의 측면에서는 다소 상반된 패턴이 발견되었는데, 자녀에 대한 필요성과 자녀의 정서적 가치에 대한 동조성은 남녀 모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편생계부양자 모델에 대한 동의정도는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차를 살펴보면, 미혼남성은 결혼에 대한 필요성에 동조하는 정도는 낮아진 반면 여성은 결혼필요성에 동조하는 정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혼전동거에 대

한 수용정도와 성분업적 역할규범 지지는 여성에게만 유의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05년과 2009년 조사의 응답자들은 연령범주만 동일할 뿐 다양한 사회·인구학적 배경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치관 점수의 차이가 시대에 따른 변화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배경변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가치관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변량 분석을 사용해야 하며, 그 결과를 해석할 때에도 주의를 요한다.

2. 결혼의향과 가치관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가족가치관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성별, 연령, 지역, 교육수준, 조사년도를 통제한 후 결혼, 자녀, 성역할 관련 6개 가치관 변수의 유의성을 살펴보는 기초분석을 하였다. 이 로짓분석 결과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분석에서 성별을 분리하지 않았고, 동거에 대한 태도, 남성부양자역할에 대한 태도가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최종분석모델에서 제외하였다. 최종분석에서 모델1은 가치관의 주효과를 보는 모델이며, 모델2는 가치관과 조사년도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는 모델이다.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가치관 변수를 모두 고려한 후에도 2009년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은 2005년에 비해 더 낮았다. 2005년에 비해 2009년의 결혼의향 승산비가 0.69이므로 약 30% 정도 낮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의향은 낮고, 대학졸업자가 비졸업자에 비해 결혼의향이 높았으며, 현재 취업중인 자가 비취업자에 비해 결혼의향이 높았다. 그러나 거주지역이 도시지역인지 농촌지역인지에 따라서는 결혼의향에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가치관 변수의 영향력을 보면,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결혼의 필요성에 동조하는 사람일수록, 자녀의 필요성에 동조하는 사람일수록, 자녀의 정서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에 동조하는 사람일수록 결혼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남녀의 결혼과 자녀에 대한 태도 및 가치가 결혼의향과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결혼과 자녀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 결혼을 하고자 하는 의향이 더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 모델2의 결과를 보면, 이러한 가치관의 영향력이 2005년과 2009년에

다소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모델1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던 결혼의 필요성, 자녀의 필요성, 자녀의 정서적 가치, 전통적 성역할 태도 중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제외한 가치관 변수는 모델 2의 상호작용 변수가 유의하게 나타난 것을 통해 2009년에 그 영향력이 약화되거나 강화됨을 알 수 있다. 결혼의 필요성과 자녀의 필요성이 미혼남녀의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은 2005년에 비해 2009년에 더 약화되었다. 이에 비해 자녀의 정서적 가치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2005년에 비해 2009년에 더 강화되었다. 전통적 성역할 태도의 영향은 조사년도에 상관없이 동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결혼과 자녀에 대한 당위적 규범의 영향력이 최근으로 올수록 약화되는 반면, 결혼이나 자녀에 대해 부여하는 정서적 가치의 중요성은 최근에 더 강화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가치관 변수라고

<표 2>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가족 가치관(n=5,954)

	모델1			모델2		
	b	s.e.	승산비	b	s.e.	승산비
조사년도(1=2009)	-0.36	0.07***	0.69	-0.78	0.52	0.46
사회인구학적 변수						
성별(1=여성)	-0.03	0.08	0.97	-0.03	0.08	0.97
연령	-0.06	0.01***	0.95	-0.06	0.01***	0.95
지역(1=동부)	-0.05	0.11	0.95	-0.05	0.11	0.95
교육수준(1=대졸 이상)	0.22	0.08***	1.25	0.22	0.08***	1.25
취업여부(1=취업)	0.24	0.08***	1.27	0.25	0.08***	1.28
가족 가치관 변수						
결혼 필요성	1.73	0.06***	5.64	1.92	0.11***	6.82
자녀 필요성	0.21	0.05***	1.24	0.38	0.08***	1.47
자녀의 정서적 가치	0.41	0.06***	1.51	0.12	0.10	1.12
성분업적 역할 규범	0.13	0.05***	1.14	0.04	0.07	1.04
상호작용 변수						
결혼 필요성×조사년도	---	---	---	-0.30	0.13**	0.74
자녀 필요성×조사년도	---	---	---	-0.23	0.10**	0.80
자녀 가치×조사년도	---	---	---	0.45	0.13***	1.57
성분업×조사년도	---	---	---	0.12	0.10	1.12
상수	-3.89	0.33***	---	-3.61	0.44	1.17
df	10			14		
LR 카이제곱	1649.49***			1672.02***		

주: **p<0.05, ***p<0.01

하더라도 ‘특정연령이 되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연령규범이나 ‘결혼을 하면 반드시 자녀를 출산해야 한다’는 당위적 규범이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부여하는 가치의 영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3. 결혼희망연령과 가족가치관

결혼의향이 있는 미혼남녀들을 대상으로 한 결혼희망연령에 대한 가족가치관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먼저 성별, 연령, 지역, 교육 수준, 조사년도를 통제한 후 결혼, 자녀, 성역할 관련 6개 가치관 변수의 유의성을 살펴보는 기초분석을 하였다. 결혼의향과 달리 결혼희망연령은 성별 효과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추후분석에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분석하였고, 6개 가치관 변수를 모두 포함하였다. 가치관 변수들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델1의 VIF 계수를 확인한 결과 남성의 경우 1.17, 여성의 경우 1.20으로 회귀분석의 다중공선성 가정을 벗어나는 수준은 아니었다. 가치관 변수의 상관관계는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가치관 변수를 투입한 모델1에서 조사년도의 계수가 유의하여, 이러한 변수들이 고려된 이후에도 2009년의 미혼남녀들의 결혼희망연령이 2005년에 비해 남성은 0.6세, 여성은 0.7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남성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희망연령이 높고, 대졸자나 취업중인 자는 비교집단에 비해 결혼희망연령이 약 0.5세 정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남성의 경우, 결혼 필요성에 대해 동조할수록 결혼희망연령이 빨랐다. 그 외의 다른 가치관 변수들은 결혼희망연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경우,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이 결혼희망연령에 미치는 영향은 남성의 경우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가치관 변수 중에서는 결혼 필요성에 대해 동조할수록 결혼희망연령이 낮아지는 반면, 혼전동거에 대해 수용적일수록 결혼희망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가치관 변수들은 결혼희망연령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관 변수의 영향력이 2005년과 2009년 사이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아본 모델2를 보면, 남성의 경우 유의하게 나타난 상호작용 변수가 없었고 여성의 경우 자녀의 정서적 가치의 상호작용 변수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여성의 경우 자녀의 정서적 가치를 높이 평가할수록 결혼희망연령이 빨라지는 효과가 2005년에 비해 2009년에 더 크게 나타났다.

<표 3> 미혼남녀의 결혼희망연령과 가족 가치관

	미혼남성(n=2,395)				미혼여성(n=1,993)			
	모델1		모델2		모델1		모델2	
	b	s.e.	b	s.e.	b	s.e.	b	s.e.
조사년도(1=2009)	0.55	0.09***	0.38	0.71	0.66	0.10***	1.34	0.79
사회·인구학적 변수								
연령	0.59	0.01***	0.59	0.01***	0.54	0.01***	0.54	0.01***
지역(1=동부)	0.09	0.12	0.09	0.12	0.30	0.15**	0.29	0.15**
교육수준(1=대졸 이상)	-0.53	0.10***	-0.53	0.10***	-0.49	0.11***	-0.52	0.11***
취업여부(1=취업)	-0.57	0.10***	-0.57	0.10***	-0.22	0.07**	-0.22	0.11**
가치관 변수								
결혼 필요성	-0.46	0.06***	-0.49	0.09***	-0.35	0.06***	-0.30	0.10**
혼전동거 수용	0.06	0.05	0.06	0.07	0.21	0.06***	0.14	0.08
자녀 필요성	-0.04	0.05	0.01	0.08	-0.05	0.06	-0.05	0.10
자녀의 정서적 가치	-0.15	0.08	-0.21	0.11	-0.09	0.09	0.13	0.13
성분업적 역할 규범	0.07	0.06	0.04	0.09	-0.04	0.06	-0.14	0.10
남편 생계 부양 모델	-0.00	0.06	0.03	0.08	-0.03	0.07	-0.08	0.10
상호작용 변수								
결혼 필요성×조사년도	---	---	0.06	0.12	---	---	-0.09	0.14
동거 수용성×조사년도	---	---	-0.02	0.10	---	---	0.11	0.11
자녀 필요성×조사년도	---	---	-0.08	0.11	---	---	-0.04	0.13
자녀 가치×조사년도	---	---	0.11	0.16	---	---	-0.45	0.18**
성분업×조사년도	---	---	0.05	0.12	---	---	0.18	0.13
남편 부양×조사년도	---	---	-0.07	0.12	---	---	0.13	0.14
상수	17.88	0.45	17.98	0.54	17.61	0.51	17.22	0.64
F	389.71		251.77		194.87		127.26	
Adj. Rsquare	0.64		0.64		0.52		0.52	

주: **p<0.05, ***p<0.01

V. 논의 및 결론

이상에서 결혼, 자녀, 성역할태도 등 가족 가치관이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미치는 영향력을 추세 자료를 이용하여 비교해보았다.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는 전국 20~44세 인구의 대표성을 가지는 표본 조사이다.

2005년과 2009년 자료에 포함된 미혼남녀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특성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지난 5년 사이의 해당 연령층의 인구학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예를 들어 지난 5년 사이에 표본집단의 교육수준은 더욱 상승하였고, 취업률은 더 낮아졌다). 이러한 배경 특성을 모두 통제한 이후에 살펴본 결과, 여성의 결혼의향은 달라지지 않은 반면 미혼남성의 결혼의향은 지난 5년 사이에 더 낮아졌다. 결혼희망연령은 미혼남녀 모두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인 인구학적 추세와 일치하는 것이며 향후 한국 사회의 초혼연령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가족 가치관은 가족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므로 여러 하위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김경신(1998)은 결혼관, 성역할관, 자녀관, 부양의식(효), 가족주의로 하위 영역을 구분하여 연구한 바 있으며, 옥선화, 성미애, 신기영(2000)은 가족주의, 자녀에 대한 가치관(보상적, 비용적 자녀관), 남아선호 사상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결혼(동거), 자녀, 성역할태도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가족가치관을 조사하였고, 부계중심의 가족주의 가치관보다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의 측면에서 가치관을 정의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지난 5년 사이에 가족가치관의 변화가 성별에 따라, 하위 영역에 따라 선택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미혼남성의 경우 결혼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동조성은 낮아지고, 혼전 동거에 대한 생각은 변화가 없는 반면, 전통적인 성역할분업과 남성생계부양모델에 대한 동조성은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동조성과 혼전 동거에 대한 동조성이 모두 높아지고,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동조성은 낮아진 반면, 성역할태도는 다소 보수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지난 5년 사이의 경제 불황, 청년 실업률 증가와 같은 환경적 요인이 미혼남녀의 가치관, 특히 미혼여성의 가치관을 보수적인 방향으로 선회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가족 가치관이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및 결혼희망연령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2005년과 2009년의 자료를 합쳐서 분석해본 결과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결혼과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동조성이 높고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와 부양모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결혼의향이 더 높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가족 가치관과 규범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규범을 내면화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결혼하고자 하는 의향이 더 크고, 결혼하고자 하는 연령도 더 빠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결과는 결혼의 필요성이나 자녀의 필요성과 같은 당위적 규범이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으로 올수록 약화되는 반면, 자녀의 정서적 가치 등 개인이 부여하는 가치가 결혼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으로 올수록 더 크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나, 결혼을 하면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한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라, 자녀가 있으면 부부관계가 더 행복해지고 노후에도 외롭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결혼을 하고자 하는 의향이 최근으로 올수록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가족 가치관이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및 결혼희망연령에 미치는 방식이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족 가치관의 하위 영역에 따라, 규범적 속성의 강도에 따라, 성별에 따라, 시기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난다. 최근으로 올수록 당위적 성격이 강한 규범보다 개인적 선호와 태도의 영향력이 더 커진다는 결과는 후기근대사회에서 당위적 규범으로서의 결혼이 쇠퇴하고, 개별화된 욕구와 가치의 충족방법으로서의 결혼이 더 우세하게 된다는 서구의 연구자들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결과는 미혼여성들에게 혼전 동거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지는 변화와도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서구 사회에서 동거가 결혼의 대안으로 선택되면서 전통적인 혼인율이 하락하였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출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결혼이나 성역할태도에 관련된 가족 가치관이 보수적으로 변화한 것은 서구의 후기근대사회에서의 추세와는 다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 환경과 취업이 어려울수록 안정성을 보장하는 취업을 선택하듯, 가족 영역에서도 새로운 선택이나 규범으로부터의 이탈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회귀적 변화가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의 가족 가치관의 변화가 서구와는 다른 방향으로 흐를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향후 몇 년 동안의 변화에 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가치관 연구는 난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달리 어떤 내용으로 질문하느냐에 따라 민감하게 응답이 달라질 수 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본 연구조사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편이 좋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4개 응답범주 중에 선택하게 하는 방식과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대체로 더 행복하다'²⁾라는 질문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묻는 것은 서로 다를 것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가치관 조사를 한 연구 결과들을 상호 비교하는 데에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2)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가족모듈(2003)에 포함된 가치관 질문 방식. 매우 반대부터 매우 찬성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추세 자료를 활용하여 가족 가치관이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유의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영향력이 미치는 방식이 복합적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결혼과 출산, 양육이 전통적인 부계가족을 영속시키기 위한 수단이라 생애과정상의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경험으로 가치 부여될 때 보다 많은 미혼남녀들이 기꺼이 결혼을 선택하고, 가족들이 출산과 양육을 선택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가치관대로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환경, 제도적 인프라의 가족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신 (1998) “가족가치관의 세대별 비교 연구: 노년, 중년, 청소년세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0): 145-160.
- 김두섭 (2005) “한국의 제2차 출산력변천과 그 인과구조” 《인구와 사회》 1(1): 23-53.
- 김승권 (2008) 《한국인의 행복 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정석 (2006)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비교분석” 《한국인구학》 29(1): 57-70.
- 김태현·이삼식·김동희 (2005) 《출산력 저하의 원인: 출산행태 및 출산력 차이》 보건복지부·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 김혜영 (2008) “신자유주의와 다양한 가족” 《한국사회》 9(2): 55-94.
- 김혜영·선보영·진미정·사공은희 (2007) 《비혼 1인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 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민중서림 (2010) 《옛센스 국어사전(제6판)》.
- 옥선화·성미애·신기영 (2000) “도시 및 농촌 거주자의 가족 및 친족 관련 가치관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8(9): 1-17.
- 유삼현 (2006) “지역별 차별출산력의 분석: 저출산 인과구조의 이해” 《인구와 사회》 2(2): 53-76.
- 유홍준·홍성민 (2010) “경제적 자원이 미혼남녀의 결혼 연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3(1): 75-101.
- 은기수 (1995) “결혼으로 이행에 있어서 연령규범과 순서규범” 《한국인구학》 18(1): 89-117.

- _____ (1999) “생애과정이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 생애사건연쇄분석” 《한국인구학》 22(2): 46-70.
- _____ (2005) “미혼에서 결혼으로 이행-최근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이 갖는 의미” 《보건복지포럼》 2005(4): 25-35.
- _____ (2006) “가족가치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성별 및 세대간 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8(3): 1-31.
- 이삼식 (2005)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26(2): 95-138.
- 이수진 (2005) “젠더관점에서 본 결혼선택의 규정요인” 《노동정책연구》 5(1): 131-156.
- 전광희 (2002) “한국의 저출산: 추이와 전망” 《사회과학연구》 13: 305-323.
- 정기선 (2009)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통계청·통계개발원(편) 《한국의 사회동향 2009》 통계청·통계개발원.
- 정성호 (2009) “저출산에 관한 이론적 접근” 《한국인구학》 32(2): 161-183.
- 정창무 (2008) “초혼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인” 《국토계획》 43(4): 105-118.
- 조병구·조윤희·김정호 (2007) 《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 및 지원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 최새은·옥선화 (2003) “30대 기혼남녀의 초혼연령 결정요인 연구” 《한국가족관계학》 8(1): 53-73.
- 통계청 홈페이지 자료(<http://kosis.go.kr>)
- Bramlett, M. and Mosher, W. (2002) “Cohabitation, Marriage, Divorce, and Remarriage in the United States” *Vital and Health Statistics Series 23*, No. 22. Hyattsville, MD: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 Buss, D. M., Shackelford, T. K., Kirkpatrick, L. A. and Larson, R. J. (2001) “A Half Century of Mate Preferences: The Cultural Evolution of Valu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 491-503.
- Cherlin, A. (2004) “Deinstitutionalization of America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 848-861.
- Giddens, A. (2001) *Modernity and Self-Identit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Goldstein, T. K. (2001) “Marriage Delayed or Marriage Forgone? New Cohort

- Forecasts of First Marriage for U.S. Wom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6(4): 506-519.
- Jones, G. V. (2009) “Delayed Marriage and Very Low Fertility in Pacific Asi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3(3): 453-478.
- Kalmijn, L. (2005) “Has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and Marriage Changed for Men?” *Population Studies* 59(2): 211-231.
- Lichter, D. and Qian, Z. (2004) *Marriage and Family in Multicultural Society The American People: Census 2000 Serie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and Population Reference Bureau.
- Raley, R. K. and Bratter, J. (2004) “Not Even If You Were the Last Person on Earth! How Marital Search Constraints Affect the Likelihood of Marriage” *Journal of Family Issues* 25: 167-181.
- Sassler, S. and Goldscheider, F. (2004) “Revisiting Jane Austen’s Theory of Marriage Timing: Change in Union Formation among American Men in the Late 20th Century” *Journal of Family Issues* 25: 139-166.
- Sassler, S. and Schoen, R. (1999) “The Effects of Attitudes and Economic Activity o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147-159.
- Teachman, J. (2003) “Premarital Sex, Premarital Cohabitation, and the Risk of Subsequent Marital Dissolution among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 444-455.

<부록 1> 가족 가치관 변수 간의 상관관계

	결혼 필요성	혼전동거 수용	자녀 필요성	자녀의 정서적 가치	성분업적 역할 규범	남편 생계 부양 모델
결혼 필요성	1.000	-0.048***	0.256***	0.246***	0.109***	0.123***
혼전동거 수용		1.000	-0.155***	-0.019***	0.019***	0.039***
자녀 필요성			1.000	0.215***	0.078***	0.079***
자녀의 정서적 가치				1.000	0.178***	0.148***
성분업적 역할 규범					1.000	0.378***
남편 생계 부양 모델						1.000

주: ***p<0.01

The Effects of Family Values on Intentions of Marriage and Expected Age at First Marriage

Meejung Chin · Hye-eun Chung

This study investigates changes in family values (attitudes toward marriage, children, and traditional sex roles) and examines how the values influence on their intentions of marriage and expected age at first marriage. A sample consists of 5,984 never married men and women drawn from the 2005 and 2009 National Marriage and Fertility Study. The results show that the endorsement on marriage and children has decreased while endorsement on traditional sex role attitude has increased over the past five years. Those who have higher values on marriage, children, and traditional sex role have a higher likelihood of marriage intention. However, the effects of the family values on marriage intention have weakened during the period. The endorsement on marriage lowers the mean ages of the expected first marriage. Comparing the effects of the family values during the period, this study find that normative aspects of the family values have lower effects, whereas individual aspects of the values have stronger effects over tim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effects of family values vary across sex, time, and the aspect of the values.

Key Words: Marriage intention, Expected age at marriage, Family values, Trend analysis